

정부 상생형 일자리 선정... '군산형 일자리' 날개 달았다

2024년까지 5171억 투자 전기차 24만대 생산... 1700여개 일자리 참여기업 3400억 인센티브... 생산 11조4671억 등 유발효과 기대

‘군산형 일자리’가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력산업 붕괴로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과 재도약이 기대된다. 2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 상생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광주, 10월 경남 밀양·강원 횡성에서 이은 네 번째 지정이자,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요소,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 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

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는 4명당 1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 등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은 명신으로, 올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을 3000대 위탁 생산한다. 2022년부터는 해의 3개 사의 전기 SUV 1만 5000대를 본격 위탁생산에 시작해 총 2024년까지

20만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명신 이외에도 새만금 제1공구에 입주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신규공장을 건설 중이고,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도 올 상반기 중 착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참여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활용 등 R&D, 사업초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1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이며 정부 건의사업은 7개 사업에 98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원도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4671억원, 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과거 한국 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및 수출액 비중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시 생산과 직접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군산시, 올 상반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시 소유 시설 414개 임대 점포

군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해줄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월명공원 내 임대 점포 414개다. 적용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산시는 작년 상반기에도 이들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80% 감면해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줄기로 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식품기업 유푸드와 예가원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투자협약을 했다. (익산시 제공)

유푸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장 건립

익산시와 협약... 100번째 투자 기업

익산시는 식품기업 유푸드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푸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100번째 투자 기업이다. 유푸드는 카카오, 쿠팡 등의 쇼핑몰에 한우 등을 납품하는 육가공업체로 65억원을 들여 연말 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 1만2332㎡ 부지에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예가원도 올해 48억원을 투입해 국가식품클러스터 3398㎡ 부지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 3년여 만에 100번째 기업을 맞이할 만큼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며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초·중·고 급식

친환경 농산물 비중 확대

정읍시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정읍시는 올해 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60%였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량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까지 더해 정읍시가 지원 하는 올해 무상급식 비용은 시비 19억9800만원을 포함한 65억6400만원이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 중 기준 2억1600만원의 시비가 4억9200만원으로 증액 반영된 예산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먹게 되는 대상은 지역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99개 교육기관 1만947명의 학생이다. 정읍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농가로부터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16종과 지역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가공품 21개 품목을 학교에 직접 공급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도 건강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리산 둘레길 재개장

겨울철 등산로·시설 정비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이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겨울철 정비를 마치고 2일 다시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전북, 전남, 경남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조성된 둘레길 295km를 이날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내센터도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으며, 20여명의 숲길 등산 지도사도 현장에 배치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겨울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둘레길을 닫고 등산로와 각종 시설을 정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중·고생 500원만 내고 통학 택시 타세요”



고창군이 2일부터 요금 500원만 내면 택시로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택시를 운행한다.

고창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운행

고창군은 신학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를 2일부터 운행한다. 탑승 대상은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이다. 학생은 편도 요금 500원에 택시로 등·하교 할 수 있고 차액은 고창군이 부담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올해는 100여 명의 이용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토를 마쳤다. 고창군은 지난해에도 1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통학 택시 22대를 운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 택시를 지원하고 있다”며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행정동우회장에

하철 전 문화행정국장 취임

하철(사진) 전 정읍시 문화행정국장이 제18대 정읍시 행정동우회장으로 지난 1일 취임했다. 하철은 2023년 2월 말까지 앞으로 2년간 행정동우회를 이끈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지난 2012년 문화행정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하 회장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정득심(以聽得心)’을 새기겠다”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동우회, 서로가 소통하는 동우회, 기본 좋은 동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아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던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하늘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